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르코 12,30.31)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건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건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뇨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현(10/25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1/ 3(일) 연중 제 31 주간(본당 11:00, 공소 17:30)
 ※성수 예절(성가 67)과 축일자 축하(성가 528)
▶11/ 5(화) 연중 제 31 주간 화요일 미사(11:00)
▶11/ 7(목) 연중 제 31 주간 목요일 미사 (19:00) 후 성시간
▶11/10(일) 연중 제 32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2025 사목회장 선출
본 투표-12 월 1 일 교중 미사 후
부재자 투표(12/1 미사 참석이 불가능하신 신자) - 각 구역 미사 후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전례부 – 전례부원을 찾습니다. 문의: 전례 분과장 이미란 아네스
▶성가대 – 지휘자, 반주자를 찾습니다. 문의: 성가대 임예천 글라라
▶주일학교 – 주일학교 교사및 보조교사 (대상 Gr. 9 ~ Gr.12)를 찾습니다.
 문의: 대표교사 박혜영 수산나

◎2025 예비 자 교리반
6 구역: 유지민, 엄진석, 4 구역: 김지은, 김석원
2 구역: 하유선, 5 구역: 김미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영성체 교리반
 ▶대상: 7 세 ~ 12 세 ▶교리시작일:12/8 오전 10:00
 ▶장소: 정혜실 ▶문의:교육부

◎2025 매일 미사 책
2025 매일 미사책 주문을 한글 이름과 함께 받습니다.
마감:11/10 이며 각, 구역장에게 주문바랍니다.
가격은 배송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소 소식
▶금일 간식은 송인순 에밀리아나 자매님이 준비하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11 월 공소 세례 축일자 2 명
11/22 세실리아(이민성, 손경희)

단체 소식
◎본당 울뜨레아
 ▶일시및 장소: 11/7(목) 미사 후 친교실

◎꾸리아
 ▶다음 주 11/10(일) 13:00 하상실

◎은빛 모임
친교식사 후 은빛 모임이 있습니다.
주제:노인 치아 관리 방법과 치과 보험에 관한 안내

◎자모회, 복사단
 ▶다음 주(11/10) 미사 후 회합이 있습니다.

구역모임(소식)
▶11 월 구역모임은 구역 미사로 대체합니다.
1 구역 미정 이현상 윌리엄 형제님 덕
2 구역 11/16 (토) 13:00 신용두 세바스찬 형제님 덕
3 구역 11/16 (토) 17:00 김경희 헬라나 자매님 덕
4 구역 11/ 9 (토) 18:00 전대원 요한 형제님 덕
5 구역 11/23 (토) 12:00 심현숙 카타리나 자매님 덕
6 구역 미정
7 구역 11/22 (금) 18:00 임종선 요셉 형제님 덕

친교 식사
11/ 3: 4 구역(짜장밥 \$5/\$3)
11/10: 5 구역 11/17: 6 구역 11/24: 7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137 명)

주일헌금	\$1230	교무금	\$0
감사헌금	\$	성전건립	\$71

위령 성월 기도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11 월 본당 세례 축일자 (20 명)
11/ 1 페기 (조필기)
11/ 2 토마스 (이응석)
11/ 3 실비아 (윤은숙)
11/ 5 엘리사벳 (김훈옥, 조하은,이상은)
11/10 레오 (김대현, 김은찬), 레아(차영은)
11/11 마틴 (김영상)
11/16 아네스 (이지우)
11/20 에드몬드 (최용욱)
11/22 세실리아 (김기린, 최샤니, 이옥화)
11/23 클레멘스 (강민수)
11/30 안드레아 (김의수, 이준규, 이종희, 이호현)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1/ 3	박규혜 카타리나	최아현 베로니카 최두원 스테파노 유세진 라파엘 이지민 이사벨라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11/10	임연신 비아	이준서 사도요한 최다인 안나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11/17	이인선 켄마	이준우 바오로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사랑의 착각

송정 성당 주임
신진수 골로바노 신부

여러분은 혹시 적당한 신앙생활과 손해 보지 않는 봉사활동 정도로 하느님의 축복과 삶의 기적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적당히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삶으로 자신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적당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 목숨, 정신, 힘을 다하라고 하셨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마르 12,29-31참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랑의 불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들어라)입니다. 신앙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고, 잠깐의 시간조차 내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자기 말만 합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웃(배우자, 가족,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착각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자신에게 피해나 손해, 조롱과 모욕을 주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지 전까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끌어내지 않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양다리’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사랑없는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고, 하느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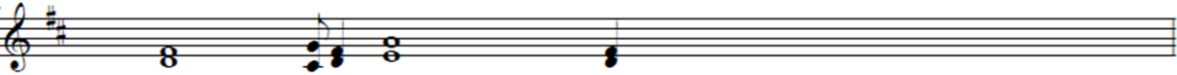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31 주일 (2024. 11. 3.)

제 1 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6,2-6
화답송 시편 18(17),2-3 ㄱ.3 ㄴㄷ-4.47 과 51(㉔ 2)



후렴.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㉔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㉔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㉔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7,23-28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㉔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㉔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2,28 ㄱㄷ-34